

2월 14일(월) / 렘 47-49

▶ **내용요약** : 예레미야는 블레셋 즉 가사를 중심으로 입할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한다. 그는 여호와와 같이 가사와 아스글론등 대표 도시들을 패망하게 할 것을 선포한다(47장). 예레미야는 모압이 유린 당해 수치를 드러내며 슬피우는 소리가 들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포한다. 그는 모압의 항락과 그들의 신 그모스를 통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모압의 불이 잘려 조롱거리가 될 것을 선포한다. 그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므로 재물이 없어지고 수치를 당하여 그들이 함락되는 날 그들이 산통을 치루는 여인 같을 것이라고 선포한다(48장). 예레미야는 암몬의 수도 랍바가 점령을 당하여 백성들이 애통하고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을 도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에돔에게 도망하고 숨으며 여호와와 형벌을 면하지 못할것ियो 에돔의 보스라가 치욕거리가 될것이고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한다.

- ▶ **질문** : 여호와와 자신의 보좌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하는가?
- ▶ **생각하기** : 주권은 어떤 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호와와 온 세상의 주권자로 열방에 대해 심판을 선언한다. 우리는 그 주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월 17일(목) / 겔 24-26

▶ **내용요약** : 에스겔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가마에 양 한 마리를 잡아 삶는 비유를 통해 피흘린 성읍 녹슨 가마 예루살렘의 음란이 하나님의 분노를 풀기 전에 그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여호와와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예루살렘이 죄악 중에 패망할 것을 선포한다(24장). 에스겔은 암몬이 유다와 성소가 유린 당할 때 기뻐한 이유로 노락을 당하게 될 것이고 모압은 유다를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과 에돔은 유다를 처서 원수를 갚고 블레셋은 옛날부터 미워하고 멸시한 것으로 진멸할 것이라고 말한다(25장). 에스겔은 두로가 패망하고 노략질 당할 것이며 바벨론이 두로를 칠 때 처참하게 망할 것을 생생한 그림으로 전달하고 두로의 멸망에 사람들이 애가를 부를 것이며 열방이 두로의 멸망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말한다(26장)

- ▶ **질문** : 에스겔은 두로의 멸망으로 그들이 누구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 **생각하기** : 우리는 늘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특히 풍요의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데 패망은 갑작스럽게 온다. 우리는 우리의 현 역사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

2월 20일(일) / 겔 33-35

▶ **내용요약** : 여호와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게 한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정신차리지 않으면 그 대가가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파수꾼이 그 경고를 말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파수꾼에게 돌아간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경고한다. 그는 의인이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해 죽고 악인이 돌이키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여호와와 가능한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될 것을 선포하고 마음의 이익을 따라 행동한 자들을 경고한다(33장). 에스겔은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잡아 먹는 자들로 퍼허하며 악한 자들

2월 15일(화) / 렘 50-52

▶ **내용요약** :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신 벨과 신상들의 수치와 이스라엘 자손의 귀환을 언급하며 바벨론의 약탈당함을 선포한다. 그는 바벨론이 여호와와 진로로 수치를 당하고 흩어진 양 이스라엘이 목장으로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보복하시고 그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며 약탈이 있을 것을 선포한다(50장).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나올 것이며 바벨론은 패망할 것을 선포하고, 예레미야는 우상의 헛됨을 선포하며 여호와를 창조주로 선포한다. 또한 그는 바벨론이 여호와와 철퇴로 사용될 것이며 바벨론은 또한 여호와와 보복을 당할 것을 선포한다. 그는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와 보복을 노래한다(51장).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악행을 고발하며 그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패망을 기록하고 여호와와 성전이 파괴 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건을 기록한다(52장)

- ▶ **질문** :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가?
- ▶ **생각하기** : 성전도 파괴될 수 있는가? 대담은 그렇다이다. 성전은 건물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성전에 나오는 자들의 삶이 중요하다. 그 삶이 악하면 성전은 더럽혀진다. 혹시 우리는 업적에 집착하고 삶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2월 18일(금) / 겔 27-29

▶ **내용요약** : 에스겔은 두로에 대해 애가를 지으라는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두로, 그들의 해상무역으로 얻은 많은 재물과 그로 인한 영광을 언급하여 그 재물과 영광이 재가 되어 슬피 통곡하게 될 것을 노래한다(27장). 에스겔은 두로 왕의 교만 즉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심판 할 것이며 시돈 또한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어 전염병으로 패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던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평안히 살게 될 것을 선포한다(28장). 에스겔은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 대적이 되며 여호와와 같이 애굽을 처서 황폐하게 만들어 다시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

- ▶ **질문** : “나는 신이다”라고 마음의 교만을 품은 왕은 누구인가?
- ▶ **생각하기** : 나의 소유는 정말로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낸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주셨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늘 재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을 억압한 포악함을 지적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여호와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를 심판하며 여호와와 종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되고 그들이 이방의 노략 거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34장).에스겔은 세일산을 향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곳이 여호와와 소유임을 강조하면서 세일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35장).

2월 16일(수) / 겔 21-23

▶ **내용요약** :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소가 여호와와 칼로 파멸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의 악과 허물이 드러나 그 왕관을 벗겨 낼 것이라고 선포한다. 또한 그는 여호와와 같이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을 파괴 할 것을 선포한다(21장)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피흘린 성읍으로 규정하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여호와와 성물을 더럽히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에 보응하여 풀무 불에 들어갈 것을 선포한다. 그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설명한다(22장). 에스겔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이 다른 나라들의 우상을 섬긴 것과 그것을 사모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더러움 때문에 그들이 사랑했던 자들이 와서 그들의 음란을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그들이 성소를 더럽힌 것으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한다.

- ▶ **질문** :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힌 자들은 누구인가?
- ▶ **생각하기** : 제사장들의 역할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되어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했다. 우리 또한 여호와와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있는가?

2월 19일(토) / 겔 30-32

▶ **내용요약** : 에스겔은 애굽에 대해 여호와와 날이 가깝기 때문에 슬퍼하라고 선포한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칼에 었드리지게 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황폐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에스겔은 애굽 왕은 꺾인 팔로서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흩어질 것을 선포한다(30장). 에스겔은 애굽이 아수르의 백항목처럼 아름다웠으나 그 교만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 악을 제거하고 포악한 민족들이 그것을 짊어 교만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애굽의 영광이 지하에 내려 갈 것이라고 말한다(31장).에스겔은 애굽의 왕 즉 큰 악어를 끌어 내어 모든 짐승의 배부름으로 삼을 것이며 애굽의 패망 소식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할 것이며 애굽의 아름다움이 칼에 었드려진 그 무덤이 되게 하겠다고 말한다. 에돔 사람들과 고관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32장)

- ▶ **질문** : 에스겔은 애굽의 바로를 바다 가운데 무엇이라고 표현했나?
- ▶ **생각하기** : 영광,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영광은 영원하지 못하다. 혹시 우리가 영광을 추구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회생 또한 생각해야 한다. 애굽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가?

- ▶ **질문** : 여호와와 악인이 돌이켜 무엇을 행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 **생각하기** : 우리는 “마음의 이익”을 따라 행동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지적한다.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마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을 무엇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